

광주 음악인 60명이 빛나는 '화합의 무대' 별처럼 빛난다

시립오페라단 기획공연,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역 음악계 역량 집약... 브랜드 가치 강화 모색

광주를 대표하는 성악가 60여명이 한 무대에 올라 오페라의 경수를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서로 다른 개성과 색깔을 지닌 성악가들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조화를 이뤄 '별'처럼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은 2026년 기획공연 '60 Stars'를 오는 14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음악계의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특별 콘서트다. 시립오페라단이 그동안 축적해 온 예술적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오페라의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무대에서는 지역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성악가들이 오페라의 대표 명곡과 한국 가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지휘자 전진을 중심으로 솔리스트 57명, 피아니스트 김성근, 엘렉톤 연주자 사쿠라이 유키오·한 효경 등이 함께해 총 60명의 음악가가 무대를 꾸

민다. 프로그램은 로시니와 푸치니, 베르디, 모차르트 등 오페라사를 대표하는 명곡을 비롯해 한국 가곡과 합창곡까지 폭넓게 구성돼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부터 오페라 애호가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솔로, 중창, 대규모 합창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성악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과 집단지 에너지가 극대화해 기존 오페라 공연과는 또 다른 콘서트 형식의 밀도 높은 감동을 만들어 낼 전망이다.

오프닝 아리아는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가 장식한다. 이어 사랑의 장면을 테마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와 베르디 오페라 '리

골레토' 중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딸이여',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모두 함께 달려가 축하하세', 봄의 노래를 테마로 신상우의 '인생'과 박하얀의 '꿈꾸는 개미', 조혜영 편곡의 '목련화'가 무대를 채운다. 아울러 합창 모음곡들도 울려 퍼진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하늘의 왕이여',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테 데움' 및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마라', 덴자의 '푸니쿨라, 푸니쿨라'가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시존 레퍼토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객 저변 확대하는 동시에, 오페라단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적 연

대감을 형성하고 광주·전남 음악계의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최철 예술감독은 "'60 Stars'는 단순한 갈라 콘서트를 넘어 시민과 예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장이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60개의 별이 하나의 하늘을 이루는 이번 무대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시민에게 전하는 감사이자 약속으로서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연은 인터미션 없이 70분 동안 진행된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예스24에서 하면 된다. 관람 연령은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입장료는 전석 2만원.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시간이 머문 남도... 선 위에 그리움 쌓인다

어반 스케쳐스 광주 회원전, 31일까지 나주 여천갤러리 9명 참여 5점씩 출품 63점 선봬...도시 풍경 진수 조망

어반 스케쳐스 광주 회원들이 전시를 열고 있다.

어반 스케쳐스 광주(Urban Sketchers Gwangju) 회원들은 지난 1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빛가람동 소재 여천갤러리에서 '시간이 머문 남도, 선 위에 쌓인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어반스케치전을 갖는다. 출품작은 9명의 회원이 각 5점씩, 최신 정형외과 병원 관련 어반 스케치 작품 18점 등 총 63점이며, 전시기간 중 작품을 조금씩 더 늘려가며 선을 보이게 된다.

어반스케치는 말 그대로 '도시 풍경을 그리는 그림'이지만, 단순한 풍경화에 머물러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이들이 만나 함께 기록하고 교류하는 문화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어반스케치는 "우리는 현장에서 그린다"라는 선언 아래 2007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현재 전세계 70여 개국, 수백 개 도시에서 공식 첵터가 활동하는 시민 예술운동으로 확산됐다. 국내에서도 2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식 첵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반스케쳐스 광주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증 받은 공식 첵터다.

이들은 광주를 비롯해 남도의 골목과 전통시장, 근대 건축, 공원과 재생 공간, 축제와 이벤트 현장을 찾아다니며 스케치를 통해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발견한다. 이는 사라져가는 풍경을 기록하고,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를 다시 읽어내려



어반 스케쳐스 광주 회원 9명은 오는 31일까지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빛가람동 여천갤러리에서 '시간이 머문 남도, 선 위에 쌓인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어반스케치전을 갖는다. 사진은 참여회원들이 전시장 내 배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는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집이나 직장처럼 익숙한 공간조차 무심히 스쳐 지나가 마려오지만 평범해 보이던 장소도 어반 스케치를 통하면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일상의 풍경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일상의 미학'이 싹튼다는 설명이다.

어반스케쳐들은 완성도의 경쟁보다 각자의 시선으로 도시를 기록하고 이를 나누는 데 가치를 둔다. 스케치는 개인의 취미를 넘어 도시의 기억을 함께 축적하는 공공적이고 공유적인 행위로 확장된다. 한 장의 그림은 그날, 그 시간의 도시를 담은 기록이 된다.

회원들은 저마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지역을

아울러 '남도'라는 지리적·정서적 범주로 확장해 광주, 나주, 순천, 신안, 영광, 여수, 장성 등 다양한 지역의 풍경을 담아냈다. 전시 리플릿에 각자의 지역을 함께 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 회원으로는 차선화 정성모 양승희 전영선 최유리 이숙현 장윤숙 김경주 김성미씨 등이다.

기획을 맡은 차선화 회원은 "저는 이 전시를 '같은 곳을 다르게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어반스케쳐스는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세계를 기록하는 태도이고 기록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선과 색이 충

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고 전시도구도, 사이즈도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성이 드러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에 유일한 남성으로 참여한 정성모씨는 "일상의 풍경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남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에게 어반스케치는 풍경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그날의 마음을 담는 일이다. 그래서 평범한 공간속 따뜻한 머무름이 제 그림속에서도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천갤러리는 지난해 9월 개최 정형외과 3층에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브리프' 제79호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최근 '광주지역 결혼이주여성 취업실태 및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젠더브리프 제79호(2026년 2월)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추진한 광주지역 결혼이주여성 취업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광주지역 결혼이주여성 400명 대상 취업실태조사와 결혼이주여성고 지원기관 담당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 및 취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해 이들의 요구에 기반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2006년 745명에서 2024년 69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적응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는 양상을 보였다.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9.1%만이 경제활동을 했지만 10~15년 미만 46.6%, 15년 이상 61.9%가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장벽, 정보미흡, 자녀돌봄 등의 문제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했더라도 저임금,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취업이 대부분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구직활동 시, 먼저 이주한 동포나 지인의 경험과 구직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체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도 '의사소통 어려움'(47.8%)과 '문화적인 차이'(45.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유무, 업무 수행 능력과 별개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사업주의 선입견이 노동시장 진입 방해 요인으로 꼽혔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이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관 내 네트워크·협력 확대, 결혼이주여성 취업 정보 접근성 확대, 결혼이주여성 취업자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결혼이주여성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결혼이주여성 취업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젠더브리프 원문은 광주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gjwf.or.kr)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인스타 댓글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해요"

광주여성가족재단, 8일까지 시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하는 시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오는 8일까지 재단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하는 '시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

새기고 노동시장 내 성평등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국내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 등 주요 현안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구성,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재단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댓글을 남긴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



정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각각 제공할 방침이다. 결과는 오는 10일 재단 인스타그램에 공지하고 개별 안내 후 상품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의 가치를 공유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며 시민 참여형 홍보를 통해 정책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세계 여성의 날이 단순한 기념을 넘어 오늘의 노동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 또는 인스타그램(@gjwomenfamil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0532.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